

치 사

불기2555년 '부처님오신 날'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와 율동으로 찬탄하는 제6회 찬불 율동제 • 제23회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·외빈 여러분들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키워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,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어린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, 부처님의 마음과 닮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런 어린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불가는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쉽고 감동있게 전할 수 있는 훌륭한 포교방법입니다. 찬불가를 듣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, 부처님 세상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오늘 찬불 율동제와 연꽃노래잔치가 우리 어린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축제의 장, 어린시절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어른들의 추억의 한마당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.

이 자리를 마련하게 위해 애쓰시니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, 찬불율동제와 연꽃노래잔치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오신날의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불기 2555(2011)년 4월 23일

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

자 승